가정예배

03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성경 사도행전 4:32-37

신 67 쉐마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은혜의 찬양 229장)

1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뤄지이다

2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찬송가 207장)

2

1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2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3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4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둔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말씀 읽기 사도행전 4:32-37

32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36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 그가 밭이 있으매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본문 배경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무리가 생겨났고, 이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믿는 무리인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여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들은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위와 경제적 상황, 환경이 모두 다른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들은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이를 들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아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었음을 행동으로 보여 줍니다. 자신의 재산을 성도들과 나누고 물건을 함께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밭과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물질을 나눠 주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 일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모든 사람이 은혜 가운데 기뻐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 관찰

1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32절)

답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공유했습니다.

해설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었음에도 그들은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습니다(32절). 때로는 가족도 하나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는 것보다 같은 편끼리 하나 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때 부흥을 경험했어도 하나가 되지 못해 무너진 교회가 많습니다. 이번 본문 말씀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부흥이란, 공동체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 것입니다.

2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34절)

답 자신의 것을 팔아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해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한마음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 썼으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32절). 초대교회 부흥의 표식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물질관의 변화였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공동체를 살리는 데에, 특히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34절). 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꺼이 귀한 물질을 내놓는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구제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통로이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풂을 아끼지 않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적용

1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의미 있는 일을 한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을 가족과 나눠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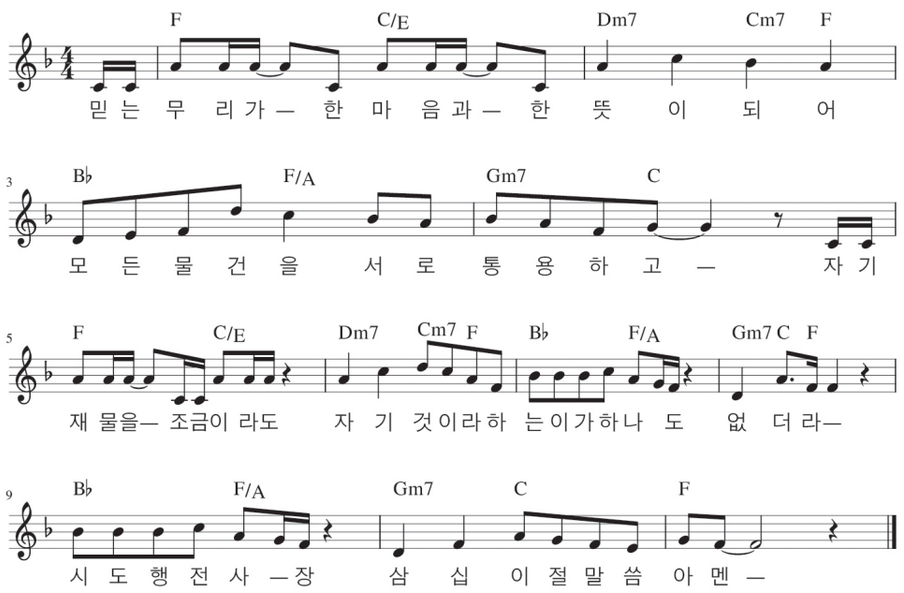
2 어떤 사람을 살리거나, 살맛이 나게 도움을 준 경험이 있나요? 그 내용을 가족과 나눠 보세요.

말씀 암송

7-3 믿는 무리가

사도행전 4장 32절

♩ = 83 작곡 이종윤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우리 가정이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부흥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생생하게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부흥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